나를 뛰어넘다 SmArt 동강대학
http://www.dkc.ac.kr 062-520-2552~5 SMART 동강대학

光州日報

아파트 담보대출 시세 90%까지
DAYOU 대유와 함께 빛이나는
스마트저축은행
www.smartbank.co.kr 대표전화 1577-3800

광주 12/22℃ 목포 11/19℃ 여수 12/21℃

단기 4344년 (음력 4월 11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광고 문의 (062)227-9600 kwangju.co.kr 제18973호 1판 2011년 5월 13일 금요일

4대 강 살리기 사업 가운데 하나인 영산강 6공구 극락교 앞 임시제방이 지난 11일 내린 폭우로 일부 유실된 가운데 12일 비가 그치자 공사현장 관계자들이 중장비를 이용해 물 막음 공사를 벌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영산강사업 불안한 속도전

극락교 밑 물막이둑 유실 시비…하류 수도관 파손

지난달 20일간 시정조치 등 27건 지적

4대강 사업이 준공을 앞당기기 위해 기본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강행되면서 주민들의 단수 피해는 물론 호우에 공사현장이 유실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하나인 영산강 6공구 승촌보 임시물막이 공사 현장에 매립돼 있던 수도관이 10·11일 양일간 내린 100㎜의 비로 인해 11일 오후 일부 이탈했다.

이로 인해 광주시 서구 서창동과 광산구 도호동 등 2개동 95가구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특히 저녁시간에 물이 갑자기 끊겨 상황을 미처 알지 못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시공사측은 이날 사고를 준설공사를 하면서 강바닥에 매설된 수도관이 강물에 노출되면서 불어난 물에 의해 파손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정부가 본격적인 장마철 전에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속도전을 벌인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주민들은 시공사측이 불어나는 물로 인한 임시물막이 공사현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물길을 터줬다는 주장에 대해 호우를 견디지 못하고 물막이의 일부가 유실됐다고 맞서고 있다.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4시께 영산강 6공구 승촌보 현장 극락교 하부 상수관로(지름 600㎜)와 서창교 하부 상수관로(200㎜)가 이탈했다. 익산청 등은 준설공사로 인해 강물의 수압이 높아진 상황에서 비가 많이 내려 상수도관의 접합부가 수압을 견디지 못해 파손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익산청 관계자는 "파손된 상수관로는 12일 오전 7시10분께 복구가 됐다"며 "갑자기 많은 비가 내릴 것을 예상하지 못해 상수관로 이설을 미리 하지 않은 잘못은 인정하며, 이달 말께 상수도관 이설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일부 임시물막이 붕괴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비가 많이 오면 임시물막이를 해 놓은 곳으로 물길을 터주게 돼 있는 데 이를 두고 붕괴됐다고 오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다. 광주시 서구 마륵동에서 조경수 재배 농장을 하고 있는 이모(58·화순군)씨는 "11일 농장에 물이 빠지지 않아 극락교 인근 공사현장을 보니 불어난 물에 제방이 무너지고 있었다"며 "정부에서 안전하다고 하던데 불안한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광산구 도호동에 사는 김모(48)씨도 "4대강 사업 곳곳에서 인명사고와 식수대란, 홍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불안하다"며 "제대로 안전조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안홍준(한나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4대강 공사 관련 산업안전 점검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1일~20일 동안 시정지시, 사용 중지, 작업 중지, 과태료, 사법 조치 등을 받은 산업안전 지적건수는 총 294건이며, 영산강 살리기 사업 공사 현장에서도 27건이나 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12일 오후 영산강 6공구 승촌보 현장을 방문, "이설을 위해 강물에 노출시킨 상수관로 2개가 강물의 수압을 견디지 못해 파손된 것은 4대강 사업이 얼마나 무모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인 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여수엑스포 북한 참가 추진

정부지원회의…조직위·통일부 국제관에 北부스 운영 검토

김총리 "이번 박람회 해양강국 거듭날 계기"

정부와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1년 앞으로 다가온 여수세계박람회에 북한의 참가를 추진중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3면〉

12일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와 통일부가 내놓은 '2012여수세계박람회 기관별 중점지원과제 추진 현황'에 따르면 조직위는 박람회장 내 참가자 전시관의 하나로 조성되는 국제관(연면적 7만1700㎡)에 북한 전시 부스 운영을 유도하는 쪽으로 북한 참가를 추진중이다.

이 계획은 지난달 열린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실무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12일 김황식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2여수세계박람회 정부지원위원회'에서도 보고됐다.

통일부와 조직위측은 이날 정부지원회의에서 '북한의 여수세계박람회 참여 유도' 방안을 중점 지원과제로 삼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하지만 북한 참여 여부와 시기 등에 대해서는 남북관계 상황을 주시하며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여수에서 '여수박람회 정부지원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개최지 여수가 지리적 제한 등의 이유로 성공 박람회에 대한 일부 우려가 있지만 우리만의 독창적인 콘텐츠 개발로 세계인의 관심을 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총리는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여수박람회가 명품 해양박람회, 그린(Green)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 총리는 또 "이번 박람회가 우리나라가 세계 중심국가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고 해양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행사 준비에 집중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람회장을 비롯한 부대시설과 연계 교통망을 제때 건설하고 출입국 관리와 방역·대테러 안전대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김총리는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환승주차장을 여수시 덕충동·수정동·화치동·율촌면·돌산읍과 순천시 해룡면 신대지구, 광양시 마동일원 등 총 6곳(153만1402㎡)로 3.5배 가까이 확대하고, GS칼텍스가 사회공헌사업으로 추진중인 문화예술복합공간 '예울마루'와 신월동 관광호텔 등을 박람회 지원시설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안을 승인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김영진 "과학벨트 광주 배치 확정적"

"충청·경북권과 분산 배치 유력…광주시 상위 3개 후보지에 포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최종 입지 선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광주시가 10개 후보지 가운데 최상위권에 포함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과학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은 12일 광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정부 관계자 및 과학벨트입지평가위원 등으로부터 '광주시의 점수가 상당히 높으며 최종적으로 상위 3개 후보지 내에 포함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김 의원은 이어 "이에 따라 10개 후보지 가운데 압축되는 5곳에 광주시가 반드시 포함될 것"이라며 "과학벨트는 광주시와 충청권, 경북권에 분산 배치될 것이 확정적이며 문제는 광주시의 본원 유치 여부"라고 말했다.

과학벨트 기획단은 이번 주말께 과학벨트평가위원회 평가 결과를 토대로 10개 후보지를 5개로 압축한 뒤 16일 열릴 3차 과학벨트위원회 전체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3차 회의에서는 이를 검토해 과학벨트의 최종 입지를 확정, 발표한다.

한편, 과학벨트의 핵심인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 본원은 거점지구에 설치되고 분원 2~3곳에 50개 연구단이 분산 배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학교설립 57주년 (1954~2011)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
(061) 360-5050